

간협,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 지원 총력

신경림 회장, 경북지역 전담병원 방문해 간호사 격려

간호사 휴식 장소·감염예방 장비 부족 심각

방호복 찢어지면 감염 공포보다 장비 손실 미안함 더 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3월 6일 경북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을 방문해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로하고, 지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

이번에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을 직접 살펴본 결과 감염예방 장비가 상당수 부족해 간호사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간호사들의 식사와 휴식을 위한 공간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근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A병원의 경우 이동식 음압기가 설치된 병실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가 정부에 해당 병원의 이동식 음압기 설치를 건의한 결과 10대가 긴급 설치됐으나, 앞으로도 추가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방호복, 체온계, 혈

액계, 전동식호흡장치(PAPR) 등도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들이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시간이 3~4시간인 경우가 허다했는데, 이는 방호복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입고 확진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다.

B병원 간호사는 “격리병동 근무 중 가끔 방호복이 찢어질 경우 서둘러 병동 밖으로 나온다”면서 “감염에 대한 공포보다는 근무가 끝나지 않았는데 부족한 방호복을 하나 더 사용해야 한다는 미안함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C병원 간호사는 “병원 장례식장이 간호사들의 기숙사나 다름없다”라며 “손으로 숙옷과 양말 등을 빨아 테이블에서 말리는 등 불편함이 많지만 그래도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있어서 위안이 된다”라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코로나19 전담병원 방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

점과 간호사 지원방안을 보건당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하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현장 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현장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직접 만나보니 고마움과 함께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격리병동에서 확진환자와 24시간 함께 있는 의료인은 간호사이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환자 간호에만 전념하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제대로 된 감염예방 장비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전담병원 방문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로 잡음으로써 현장의 간호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국가적 의료제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3월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7382명이다. 이 중 7165명이 격리 중이고, 166명이 격리해제됐다. 사망자는 51명이다. 대구지역의 확진자는 5571명, 경북지역의 확진자는 1107명이다.

정규숙·이진숙 기자

ICN “한국 간호사 격려” 영상 보내와

코로나19 최전선의 간호사들에게 깊이 감사

국제간호협회의

회(ICN)에서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한국의 간호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영상메시지를 3월 5일 대한간호협회에 보내왔다.



하워드 캐튼(Howard Catton) 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ICN 아네트 케네디(Annette Kennedy) 회장님과 이사진을 대표해 한국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을 지원하고, 코로나19를 관리하고 억제하기 위해 늘라운 일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간호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와 같이 피해가 큰 지역에서 장시간 엄청난 압박 속에서 일하며 희생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주신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어 “ICN은 세계보건기구(WHO)와 함께 코로나19를 억제하고 퇴치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조율되고, 간호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며, 간호사들을 지원할 수 있는 지점이 수립되고, 모든 의료인력이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ICN은 간호사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WHO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는 ICN에서 매우 존경받는 회원국이며, 신경림 회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와의 사투 및 모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는 세계 간호사와 조산사의 해이며, 간호사들이 매일 수행하는 일들은 세계 보건에 있어 간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다”면서 “ICN은 한국의 간호사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코로나19 담당 간호사 ‘상담지원’ 안내

간호사의 건강이 안전해야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와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간호사들의 정서·심리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지지하기 위해 정신전문간호사로 구성된 전문상담팀에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전화 : 대한간호협회 02) 2206-1926

상담기간 : 2020년 3월 9일~4월 3일

상담시간 : 월~금 09:00~18:00



경남간호사회, 코로나19 최전선 간호사들에게 격려물품

경남간호사회(회장 박형숙)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위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경남간호사회는 지난 2월 28일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과일 등 간식이 담긴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어 경남간호사회 분회 임원들이 경남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해 격려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분회장 및 임원들이 각 의료기관



을 방문해 손소독제, 직접 만든 생강청 등의 물품과 응원메시지를 전하며 간호사들을 격려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연간 발행계획에 따라 3월 19일자 신문 휴간합니다.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신경림 인쇄인 김갑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간호사신문 (02)2260-257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특주소변경 (02)2260-2571	
koreanurse.or.kr	nursenews.co.kr	
시·도 간호사회		
서울시 (02) 853-5497	충청북도 (043) 272-1573	병원간호사회 (02) 2261-1711
부산시 (051) 253-3824	충청남도 (041) 569-6348	보건간호사회 (02) 525-7318
대구시 (053) 756-8485	전라북도 (063) 255-3390	보건진료소협회 (02) 2266-7677
인천시 (032) 441-2925	전라남도 (061) 277-2292	보건교사회 (02) 527-3390
광주시 (082) 227-7561	경상북도 (053) 743-2721	마취간호사회 (010-2061-6471)
대전시 (042) 535-0739	경상남도 (055) 262-6006	보험심사간호사회 (02) 2263-1959
울산시 (052) 258-2311	제주도 (064) 747-3811	산업간호사회 (02) 716-9030
경기도 (031) 252-0351	군진 (042) 878-4590	가정간호사회 (02) 2267-5688
강원도 (033) 263-6417		정신간호사회 (02) 425-1271
		노인간호사회 (052) 230-073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편집윤리원칙을 준수합니다.

대구 다녀온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MBN 종합뉴스 출연 ... 간호사 지원방안 촉구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3월 2일 MBN 종합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의 상황과 지원방안에 대해 김주하 앵커와 대화를 나눴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2월 27일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의료원, 포항의료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고충을 듣고 격려하고 돌아왔다.

신경림 회장은 “워낙 많은 환자가 몰려들면서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력과 필수 안전용품 부족이 심각했다”면서 “병실에는 안전을 위해 최소인력만을 투입하다 보니 간호사 혼자 다 해결해야 하는 업무

과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 번 투입되면 일주일, 한 달씩 사실상 퇴근을 하지 못하고 임시 제공된 숙소나 장례식장 한쪽 공간에서 쪽잠을 자고 있다”면서 “사명감만으로 버티기에는 한계를 넘어서 지금은 간호사들의 건강마저 열려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경림 회장은 “대한간호협회에서 (대구·경북·과경) 간호사 지원자 모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3월 2일 오전 기준으로 누적 1300명이 신청했다”면서 “은퇴하신 분을 비롯해 을 초 국시를 치른 새내기 간호

사, 휴가를 내 신청한 간호사, 간호사 자매, 간호사 커플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경림 회장은 “무엇보다 충분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업무교대와 순환이 이뤄져 간호사들이 체력적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의료인의 안전이 곧 환자와 국민의 안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현장에 투입된 간호인력에 대한 충분한 휴식과 보상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규숙·최유주 기자

간협, 응원 릴레이 펼쳐

‘힘내라 대구·경북! 고마워요 간호사!’

대한간호협회는 코로나19 최전선의 간호사들을 위한 응원 릴레이 ‘힘내라 대구·경북! 고마워요 간호사!’를 3월 5일 오후부터 시작했다.

응원 릴레이는 대한간호협회 공식 카카오톡채널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3월 9일 현재 1230여개의 응원 댓글이 달렸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카카오톡 채널 응원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면 된다. 인스타그램에는 응원 메시지를 담은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고, 해시태그 #고마워요간호사 #대한간호협회 #thankyournurse를 입력하면 된다.



간호협회는 “국민들의 따뜻한 한마디가 간호사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응원 릴레이’ 보기 1·3면 하단

1면에서 계속

존경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대한 간호사가 진정한 빛입니다.”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힘내세요.”

“간호사들의 용기와 헌신에 존경을 표합니다.”

“간호사라서 자랑스럽습니다. 힘내세요!”

“부디 지치지 말고 컨디션 관리 잘하세요!”

“최전선의 간호사 여러분 모두는 국민의 영웅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2020 나이팅게일입니다.”

미안합니다.

“마스크 때문에 늘리고 진물 난 사진 보고 눈물났어요.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뉴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뜨겁습니다.”

“함께하지 못해 너무 미안한 맘이네요. 힘내세요~”

“감사드린다는 말씀조차 어렵습니다.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간호사들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국민건강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나이팅게일 선서할 때의 벽참을

간호사 선배님들 보면서 다시 느꼈어요.”

“간호대학생으로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존경합니다.”

“위험한 곳에서 헌신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간호대학생인 저도 꿈이 생겼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힘내세요.”

“선배님들 따라 좋은 간호사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